

# 해남군, 김성일·박성재 도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

해남군은 지난 8일 전남도의회 김성일, 박성재 의원을 초청해 예산·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 과제 해결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해남군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전남도 직접 사업인 현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마산~산이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확대 및 조기착공이 건의됐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현산천은 전남도 개선복구 대상지로 선정돼 현재 상류부 정비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읍호~신방간 하류부 구간이 누락돼 집중 호우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하류부를 포함한 일괄 정비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준에 미달될 교량의 재가설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솔라시도 기업도시로 진입하는 영암 삼호~산이 대진간 4차선 도로가 개설되면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맞춰 산이 대진~마산 용전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조기착공도 건의됐다. 명현관 군수는 도 직접사업에 대한 지역구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고, 도비 확보와 함께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빠른 사업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간담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 사업의 대상지 선정과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등 전남도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또한 전남도 주최의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와 관련해 내년 해남군을 주 전시 개최지로 선정해 수목비엔날레의 발전적 확장에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모았다. /윤규진 기자



해남군은 전남도의회 김성일, 박성재 의원을 초청해 예산·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해남군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해남군 제공

## 고흥, 정직·친절·위생 캠페인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9일 녹동 장어거리 등 도양읍 일원에서 (사)한국의식업중앙회 고흥군지부를 비롯해 일반음식점 영업주 50여명이 참여하는 민간주도형 정직·친절·위생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바가지 이용 근절과 친절·위생실천 캠페인을 전개해 다시 찾고 싶은 고흥 만들기에 앞장섰다. 주요사항으로 음식점 영업주의 다섯 가지 약속 △친절하고 따뜻한 미소로 손님 맞이 △청결한 위생환경 유지하기 △착한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 제공 △납은음식 재사용하지 않기 △개인별 위생 찬기 사용(집게·국자·얇 접시 제공)등을 모든 음식점 영업주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고흥군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와 올바른 음식문화개선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사)한국의식업중앙회 전남지회 강철환 고흥군지부장은 "올바른 손씻기, 끓인 물 먹기, 음식 충분히 익혀먹기 등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 진도군수직 인수위 활동 백서 발간

민선 8기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인수위 활동 백서를 발간하고 최근 김희수 군수에게 전달했다. 259쪽 분량의 백서에는 인수위 출범부터 해단까지의 활동 과정, 민선 8기 군정 방향, 분야·직능별 사회단체 간담회, 공약사업 정책방향, 신규 정책 제안사업, 군민 건의사항 등이 담겼다. 민선 8기 진도군수직 인수위는 4개 분야에 15명의 인수위원 등이 참여해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6개 분야 98개 공약 과제를 도출했다. 청년,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민선 8기 소통 행정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인수위는 민선 8기 군정 비전을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5대 군정 방침으로 ▲다함께 잘사는 산업 ▲모두

가 행복한 복지 ▲인재를 키우는 교육 ▲찾아서 머무는 관광 ▲군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선정했다. 박종석 인수위원장은 "인수위가 내놓은 정책제안, 건의사항 등의 결과물들이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활력이 넘치는 성공적인 민선 8기 진도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짧은 기간에도 훌륭히 역할을 수행한 인수위원과 자문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인수위의 백서를 면밀히 검토해 군정에 반영, 진도군이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인수위원회 활동백서를 진도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고 인수위에서 정리한 공약과 제안은 각 부서에서 업무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현일 기자

## 보성군, 제24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개최

9월 30일~10월 2일, 3일간 신명나는 소리의 향연 보성군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24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군중 운집 가능성이 큰 대규모 공연은 진행하지 않고 추모 공연, 경연대회 등 필수 프로그램만 진행할 예정이다. 무관중 경연대회로 진행됐던 지난 2021년과 달리 올해는 관중과 함께하는 경연 대회로 진행된다. 청중평가단 인기상을 신설해 청중의 참여도를 높인다. 명창부 본선은 기존 청중평가단 5점 배점을 없애고, 전문 심사위원의 점수로만 평가할 예정이다. /장중수 기자

것으로 기대된다. 경연대회는 판소리와 고수 분야로 나눠 명창·명고부와 대학 및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 학생부 종합 등으로 열리며,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된다. 명창부 판소리 본선은 공영 TV를 통해 방송 송출될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061-852-2621)로 접수하면 된다. /장중수 기자

## 장흥군, 제15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성료

제15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물축제는 전국에서 물려든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으며 대한민국 여름 대표축제로서 건재함을 과시했다. 축제 기간을 기존 7일에서 9일로 확대하며 2번의 주말을 끼고 행사가 진행된 점도 주말 관광객을 유입에 효과를 냈다는 평가다. 올해는 '장흥, 물과 사람을 연결하다'이란 주제로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를 배경으로 펼쳐졌다. 개막 첫날 진행된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는 공예태후 호위행렬을 재현한 역사 테마 프로그램으로 연출됐다. 매일 오후 2시, 지상 최대 물싸움 장에서는 신나고 흥이 넘치는 물싸움

이 펼쳐졌다. 이어진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은 지상 최대의 워터 붐 물풍선, 물폭탄 싸움으로 분위기가 이어졌다. 물축제의 야간 프로그램으로는 워터樂플라타가 뜨거운 인기를 누렸다. 워터樂관플라타는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수준급 플라타지만 입장료가 없고, 유명 DJ들이 라임을 구성한 것이 인기 비결이다. /백두연 기자

## 완도, 적극행정 실천 캠페인

완도군은 적극행정을 강화하고자 적극행정 실천을 다짐하는 '적극행정 3GO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으며, '적극행정 3GO'는 '적극행정 실천하GO, 소극행정 근절하GO, 내가 먼저 앞장서GO'의 의미를 담고 있다. 캠페인은 부서 및 읍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6일까지 적극행정 실천 결의문 서명과 적극행정 실천 캠페인이 진행된다. 결의문에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 새로운 행정 수요와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백나영 기자

